

보도시점 3.13.(금) 조간 &lt; 3.12.(목) 12:00 &gt;

## 중소·벤처 M&A, 준비부터 통합까지 지원한다

### - 2026년 M&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-

- 단순 중개 넘어 '실효적 지원' 전환, 기업실사·PMI 컨설팅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
- 3월 13일(금)부터 M&A 정보망 접수 시작·벤처기업은 가치평가 수수료 최대 60%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'2026년도 M&A 활성화 지원사업' 공고를 13일(금) 시행한다고 밝혔다.

M&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·벤처기업의 M&A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치 평가비용 등 M&A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,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자문을 연계하는 사업이다.

특히, 올해는 기존에 지원하던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에 더해 '기업실사 비용'과 'PMI(Post-Merger Integration, 합병 후 통합) 컨설팅 비용'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여, M&A 준비 단계부터 사후 통합 단계까지 전 과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첫째, 매도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은 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%를 1,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벤처기업인 경우 2,000만원 한도 내에서 60%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
둘째, 기업실사 비용지원을 통해 매수기업은 M&A 거래 과정에서 매도 기업의 재무·법무 리스크를 점검하는 법률·회계·세무 통합실사 비용 부담을 최대 3,0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으며, 분야별(법률·회계·세무)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대 1,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50%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셋째, 합병 이후 인사·재무 등 조직 운영체계 통합을 위한 PMI (Post-Merger Integration) 컨설팅을 실시한 기업은 최대 2,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%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< M&A 단계별 지원체계 >

		준비	실행	통합(PMI)
단계		- 거래 상대방 발굴·매칭 - 기업실사 및 가치평가	- 거래구조 설계 및 협상 - 계약체결 및 거래 종결	- 조직·인사·재무·사업 통합 - 경영 체계 정비 등
지원	신설	- 기업 통합실사 소요비용 50% 지원 (3,000만원 한도) - 분야별(법률·회계·세무) 실사 50% 지원 (1,000만원 한도)		- PMI 컨설팅 비용 50% 지원 (2,500만원 한도)
	기존	- 기업가치평가 수수료 40% 지원 (1,500만원 한도) * 벤처기업의 경우 60% 지원, 2,000만원 한도 - M&A 정보망 활용	- M&A 지원센터, M&A 자문기관 컨설팅	

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·벤처기업은 3월 13일(금) 이후부터 ‘M&A정보망’ 누리집(www.smes.go.kr/mna)에서 신청 가능하고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다.

김봉덕 벤처정책관은 “M&A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중소·벤처 기업에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”며 “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M&A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주화 (044-204-770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훈 (044-204-7706)
		담당자	주무관	김동현 (044-204-7692)